

전국 유일 전남행복버스 '왕진 운행' 시동

270여 개 마을 찾아 치매 검사·키오스크 교육·공연 등 맞춤형 서비스 눈 검사·금융상담 추가...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지자체 벤치마킹

'2025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지역민들을 찾아가는 '왕진 운행'을 시작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17일 보성 동암경로당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270여개 마을 지역민들을 찾아가 맞춤형 보건·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보성 동암마을에서는 혈압·혈당 검사, 치매 검사 등 보건 서비스 뿐 아니라 키오스크 교육, 아·미용,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도 제공했다. 몸이 불편해 문

화 활동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판소리 공연도 준비했고 영화도 상영했다.

전남행복버스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전남지역 663개 마을에서 2만명이 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16만 700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로 대한민국의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벤치마킹을 위해 전북·경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의 방문도 잇따

했다.

올해도 주 4회 270개 마을을 방문, 7000여 도민에게 26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올해는 ▲보행 보조기 세척·수리 ▲눈 건강검사 ▲찾아가는 금융 상담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 모든 마을을 찾아가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행복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아·미용, 문화공연 등 재능기부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도민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RISE' 본격 추진

도 '전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 계획 의결...5대 프로젝트 603억원 규모

전남도가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RISE위원회 회의를 열고 5대 프로젝트와 15개 단위 과제를 포함한 603억원 규모의 '2025년 전남도 RISE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남 RISE위원회는 계획, 사업 대상,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 지역 RISE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주희 동신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영록(왼쪽 두번째) 전남지사가 지난 17일 도청 접견실에서 '2025년 제1회 전남 RISE위원회' 참석차들과 환담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올해 전남 RISE 시행계획은 ▲지역·대학 통합설계 기반 전남 재도약 체계 구축 ▲지역인재·사회·경제·산업·문화·일자리 중심 대학교육 혁신 ▲지산·학·연 협력 지역 주력·미래산업의 스마트 혁신 ▲지역·대학·기업·도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글로벌 지역특화·인재양성 프로젝트(Global), 지역 산업혁신 헬렌지 프로젝트(Regional), 전문직 평생교육 허브센터 프로젝트(Advanced), 초연결 공유캠퍼스 프로젝트(Nexus),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Dynamic)의 영문 첫글자를 딴 '5대 그랜드(GRAND) 프로젝트'와 15개 단위과

제를 대학, 혁신·연구기관, 산업체, 시·군 등과 협력해 실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3월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대학, 시·군, 연구혁신기관과 설명회·전략회의를 갖고 지역 혁신 주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완성했다.

전남도는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3~4

월 중 선정평가와 이의신청을 거친 뒤 전남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 수행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대학과 힘을 모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되는 전남'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 1733억 투입 영산강 수질 개선 나서

하수처리장 신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전남도가 올해 1733억원을 투입, 영산강 수질 개선에 나선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영산강에 유입되는 지역·지천의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영산강 하류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전남도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1683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

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한다.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데 40억원을 투입한다.

영산강 유역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강 상류에서 유입된 부유 쓰레기와 강 바닥에 퇴적된 쓰레기(폐그물·폐망 등) 수거를 위한 영산

강 환경정화선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히 ' 좋음'(1등급·BOD 2mg/l 이하) 수준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영산강 상류와 달리, 광주와 나주 구간을 통과하면서 일부 구간이 '보통'(3~4등급) 수준으로 악화하는 점을 들어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집중키로 했다.

전남도는 또 농·축산업에서 기인한 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나주권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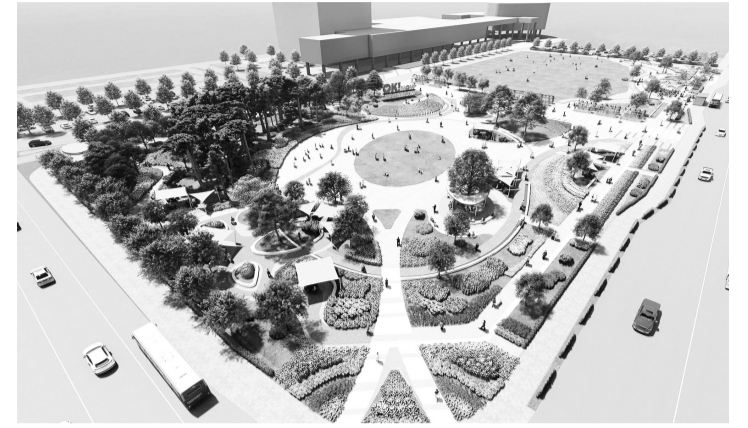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우선 지원되고 국비 지원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청 앞 잔디광장 '모두 누리공원'으로

전남개발공사 9월 조성 후 기부...공원명칭 공모

전남도청 앞 잔디광장이 가장 '모두 누리공원'(조감도)으로 탈바꿈한다.



1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남도청 앞 잔디광장을 지역민 누구나 즐겨찾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32억원이 투입되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기부한 비용으로 조성된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180억원 규모로, 개발공사는 5년 간 매년 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해왔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기부금 58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해 오는 9월까지 공원을 조성한 뒤 전남도에 현물 기부한다.

공사는 2만㎡ 규모의 잔디 광장을 사계절 정원 컨셉트를 반영해 ▲전남 상징공간 ▲장미원 ▲축제꽃마당 ▲정원산책로 등으로 조성한다. 곳곳에 그늘쉼터와 수공간을 배치하고 공원 중

심부에는 '책 읽는 광장', '팝업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조성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공원 명칭은 공개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청 앞 잔디 광장을 도민들이 즐겨 찾는 소통·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접수

도선관위, 오늘까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18일부터 이틀 간 관할 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

전남에서는 50개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사장 후보자는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 금고법과 해당 금고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 등록 신청 시에는 금고의 정관에서 정한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 기탁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후보 접수는 오는 18~19일 관할 구 선관위에 서 하며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권자는 19~21일 해당 금고에서 지정된 열람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중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영암국유림관리소, 23억 들여 230ha 사유림 매수

'산지연금형' 30ha 선착순 마감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확대·집단지향 및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3억원을 들여 광주시와 전남도내 13개 시·군의 사유림 230ha를 사들인다. 13개 시·군은 나주·목포·영광·함평·장성·무안·신안·영암·진도·해남·완도·장흥·강진 등이다.

전체 매수 물량 중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200ha(20억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30ha(3억원)이다.

매수할 수 있는 임야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공익임지, 국유림에 인접하거나 연결하고 있어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등이다.

우선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매수가 가능한 임지는 2개의 감정평가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 매수가격으로 결정한다. 다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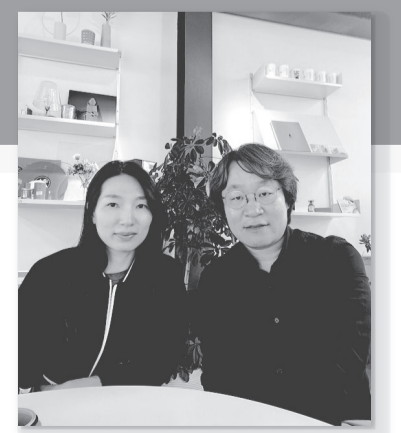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